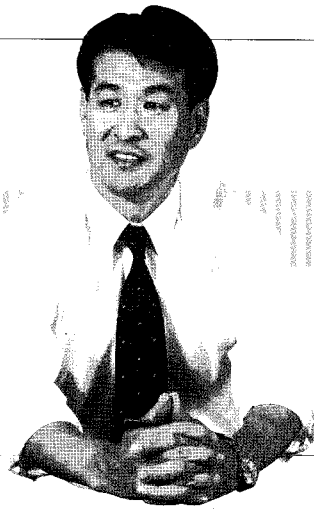


'효율적 정보 운영, 기업의 핵심 전략'



김경진
한국EMC 사장

▶▶▶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며 정보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새롭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화 사회'란 개념에는 누가 어떤 정보를 선점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맛집 정보, 내가 쓰는 카드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 국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정보까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얻는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비쿼터스 전략의 실현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길로 인식해 정부도 기업도 새로운 정보의 무한한 공급,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인프라, IT관련 하드웨어 산업을 진작했으며 이미 그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와 그에 따른 축적된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지금까지의 정보화는 1단계의 정보화, 즉 정보의 획득 및 유통에 중심을 두었던 단계이며 이제 우리는 정보의 획득 및 유통에서 정보의 활용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겨 '제 2의 정보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이미 기업들은 '정보'보다 더 자주 '지식'을 경영의 중점에 두고 있다. 최고지식경영자(CKO)라는 새로운 직함은 경영 일선에서 체계적인 지식의 활용이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식경영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자료들을 경영 상황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업 안팎의 수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 관리해 순환 시

키고 구성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축적된 정보에 접해 이를 소화해서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을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체계적인 자료수집, 축적, 관리,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이러한 정보들에 근거한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을 설정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핵심 비즈니스의 지원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경쟁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것은 곧 정보화 사회의 제 2단계를 직감하고 이에 대한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조금이라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다.

'정보화 사회'라는 사회학적 해석과 지식 경영이라는 '경영학적 대응'은 이렇게 결국 다시 '정보'의 화두로 수렴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우리는 이미 그저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의 1차적 문제를 넘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가 더 중요한 '제 2단계 정보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넘쳐나는 정보들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쓸 수 있는 소중한 경쟁력으로 되살아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 정보화 지식사회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다.

21세기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얻는 것, 중요한 정보를 선점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경영의 최대의 적인 '불안정성의 증가'이다. 판단과 결정의 근거와 기준이 될 수 없는 분류되고 정리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정보는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더 나은 상태로 가공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 최적의 시점에 최적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효율적인 정보 운영의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이다. 한국에도 정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정보수명주기 관리(ILM, Information Lifecycle Management) 개념이 소개되어 있다. 정보의 활용 및 인용가치에 따라 정보의 보존 수명을 지정해 저장 관리해 기업의 정보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넘쳐 나는 정보를 인용빈도, 유효기간, 보존 가치 등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정보 각각에 나름의 '수명'을 부여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선 선택의 문제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화의 시대를 맞는 지금,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변화하는 사회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업 관련 정보들을 활용 용이한 형태로 준비해 운영해두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정보를 가공하는 것은 21세기 시장에서 이미 생존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21세기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 운영은 그 금값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